

이만식 교수 (장신대 사회복지 전공)



거짓말의 세 종류

벤자민 디즈레일리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발터 크래머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통계를 들먹인다"

황소의 무게



숫자의 효능

많은 사람이 교회세습에 반대한다.



막연한 인상이나 짐작으로 알고 있던 현상에 통계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쟁점이 한결 명료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교회 세습은 최대 실수" 참회하고 …

입력 201210,03 00:47 / 수정 201210,04 18:59

시기가 왜 무서운 죄인가?

A 본목로 시가는 질투의 참적은 일심적인 감정의 변화처럼 여기고 심각한 죄로 역기의 않습니다. 그라는 시기를 간정을 참 다스리자 일으면 엄청나게 부탁을 정과를 가복용

"교회세습 금지" 감리교 法개정… 개신교단 파장

기사업력 2012-09-26 03:00:00 | | 기사수정 2012-09-26 03:00:00

外内の作品を 場合による 19 (B.O.O.O.)

बहुत्वं स्थाप्ता साथ नार्वाक्ष्यकात.

사일 기업에 **걸느가 이런된 사용 확인로 역가** (1)회에 대한 전망하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되고 생각한 당한이고 있습니다. 사기에고 생각하는 이렇게 다. 그런으로 '네가운데 100대 무나는 데 하는 무료에 이용한 대표했던 하는 영안을 했다고 됩니다. 전문 우리는 사이어나는 다. 너는 그리나 교회를 당하나 목표하는 것

스타네 방향이나 가면 지도 되산을 빼앗고... 일본 19세도 더 많이 하므로, 하에 끄럿 5세 · 中国的企业的企业 (1964年) 建铁电影 (1964年)

न्याप भारत् नेद्यान्ति कृति आसर्थ । एक् सम्प्रत्य नकृति संभावतं मृत्यति । यदा स्थलितं नकृत्वातं भारत्यः कृति रोबोद पंत्रीत नेता हिन श्रीतरिक्त, सबी - कुट्टानेस हिन लेक्सानी श्रीक लोकान - प्रतास लेक्स लोक्स हिन्दार, लोकानेह

교회 세습반대 움직임 확산..이번엔 가능할까 **◎연합뉴소**| 기사입력 2012-09-23 06:10



교회의 세상의 관심 문제



인구사회학적 기초자료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50%

나머지 시,군,구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목회자

신학생

신학교수

평신도와 일반인

성별

목회관련자

일반응답자



78.1%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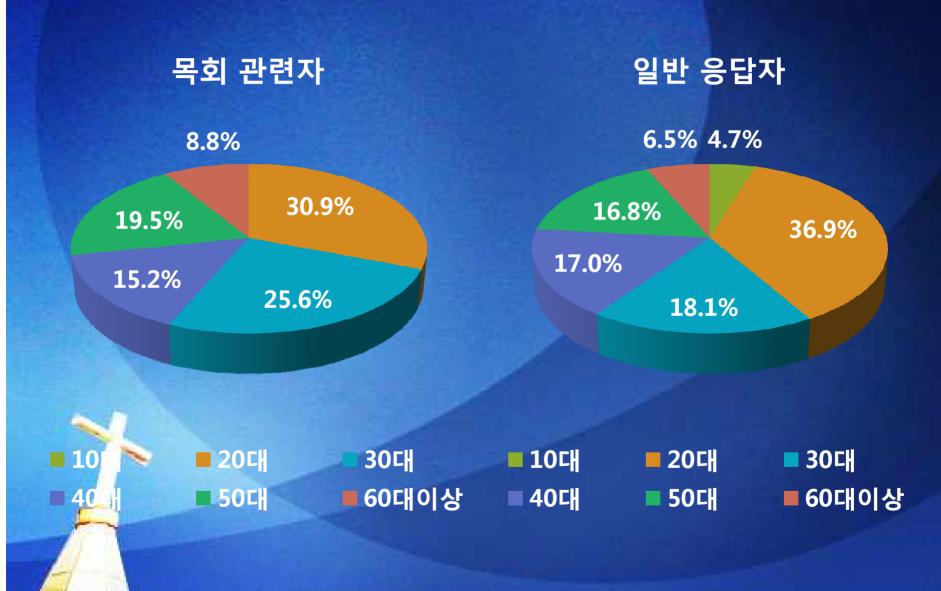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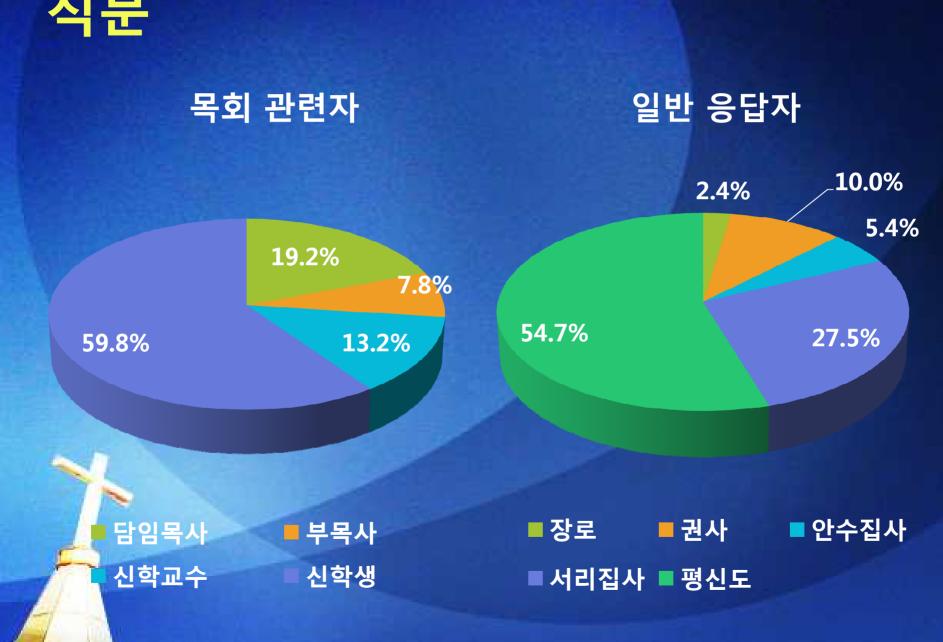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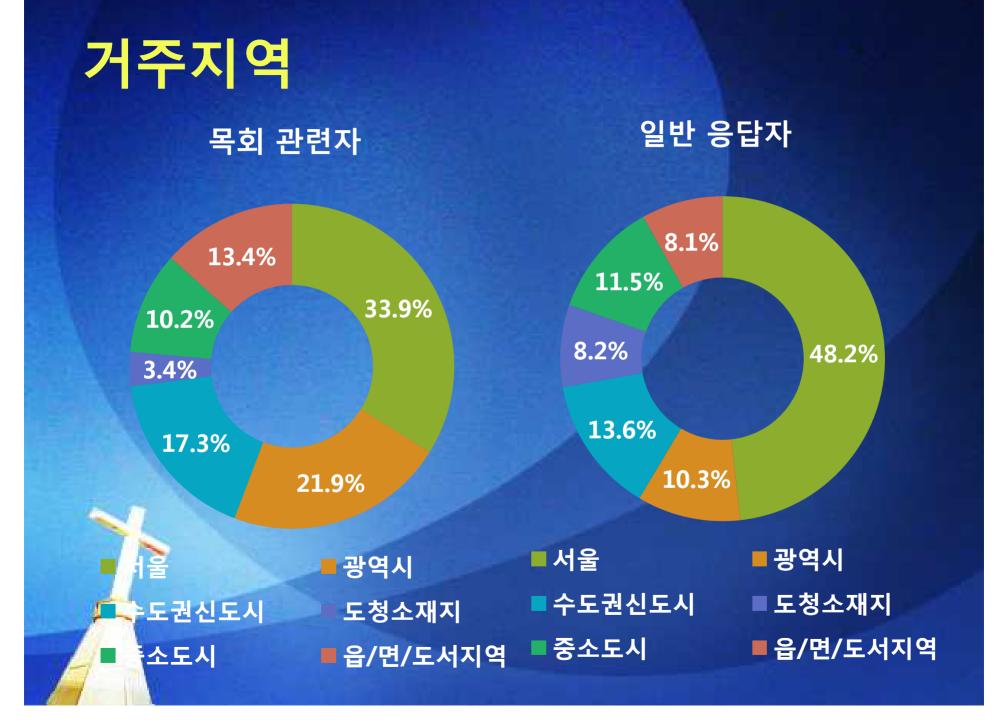
61.7%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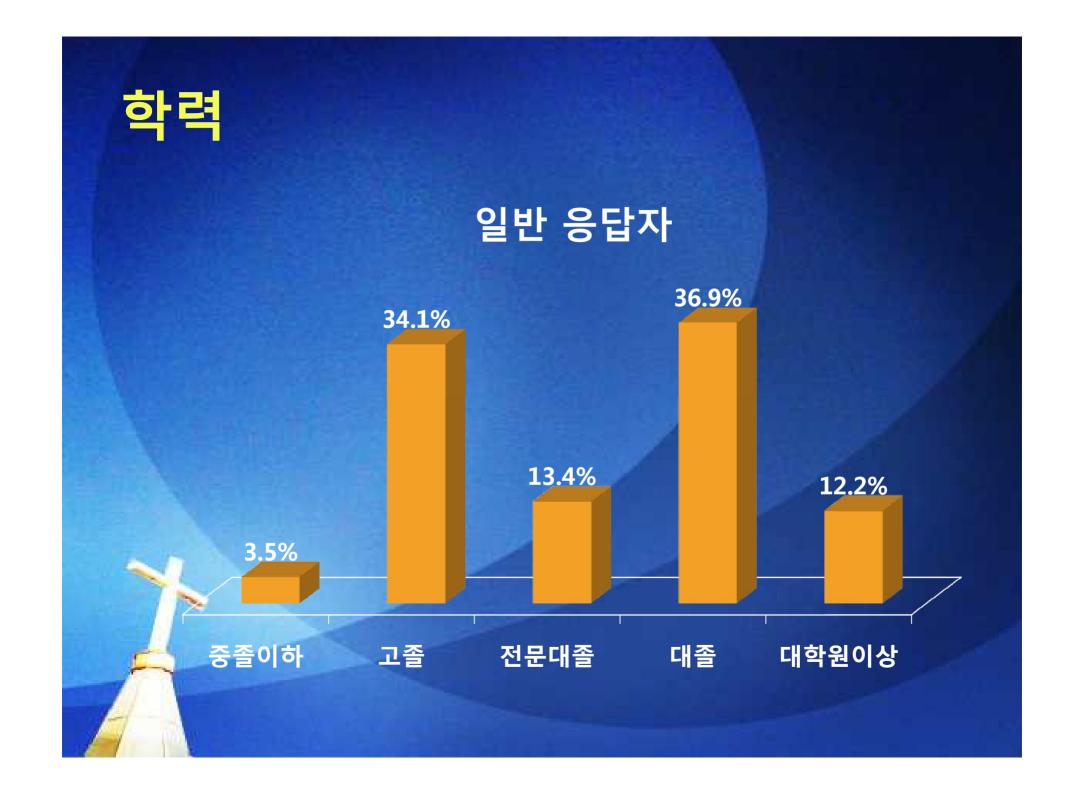


직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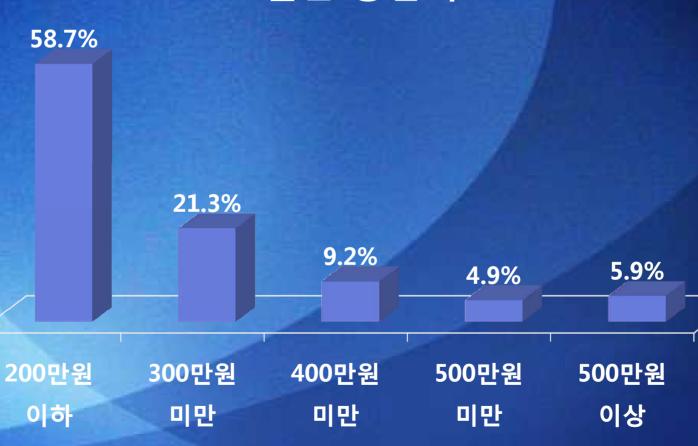


종교 일반응답자 28.1% ■기독교 51.8% 불교 8.8% ■가톨릭 11.3%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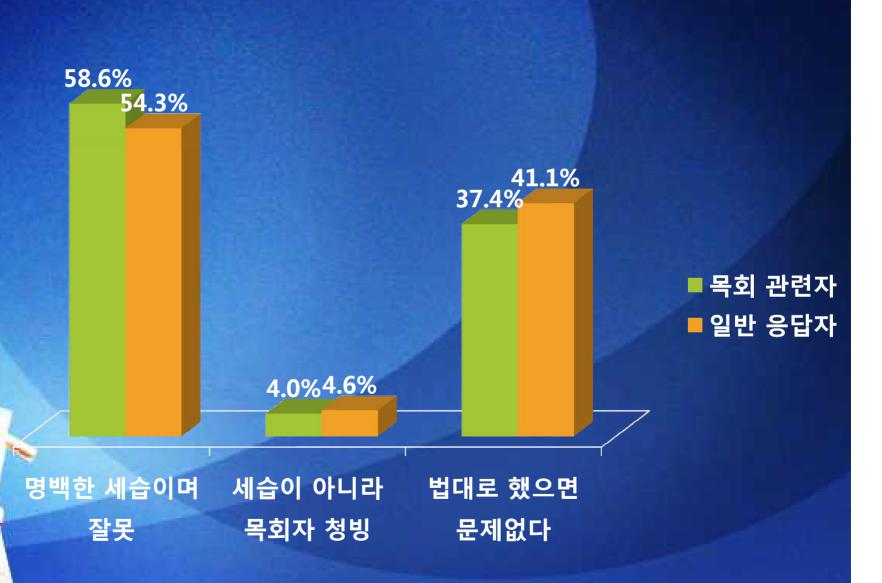
평균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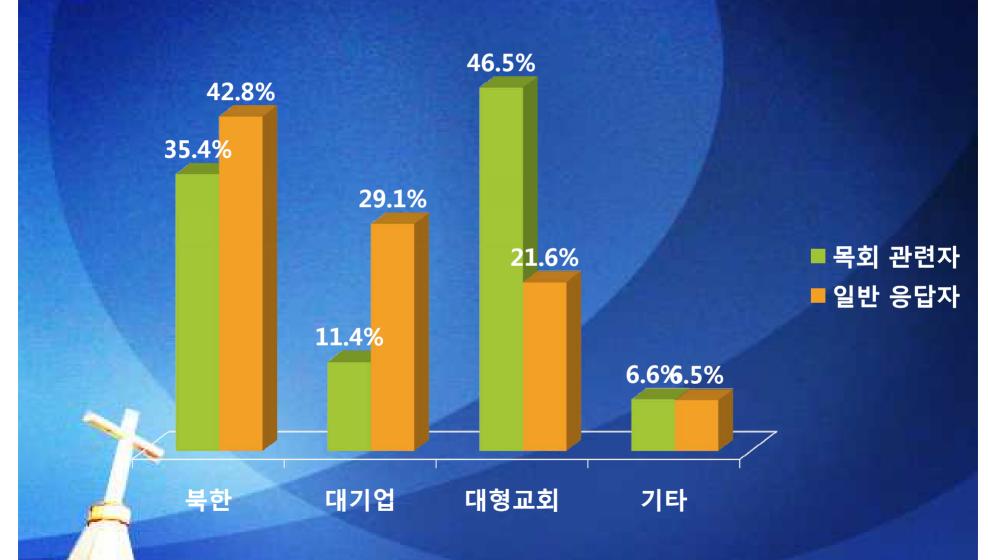


목회관련자와 일반응답자의 의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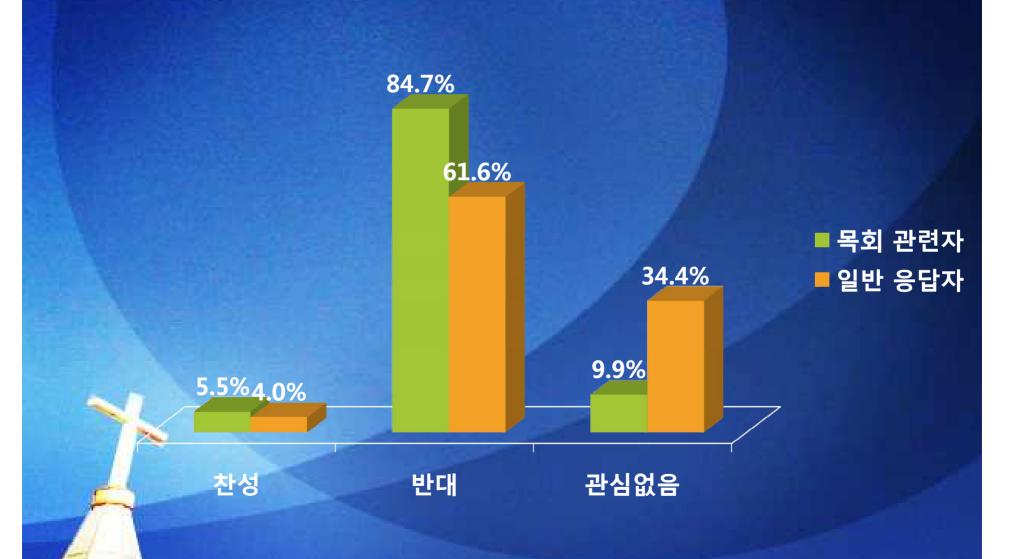
아들을 후임목사로 세우는 것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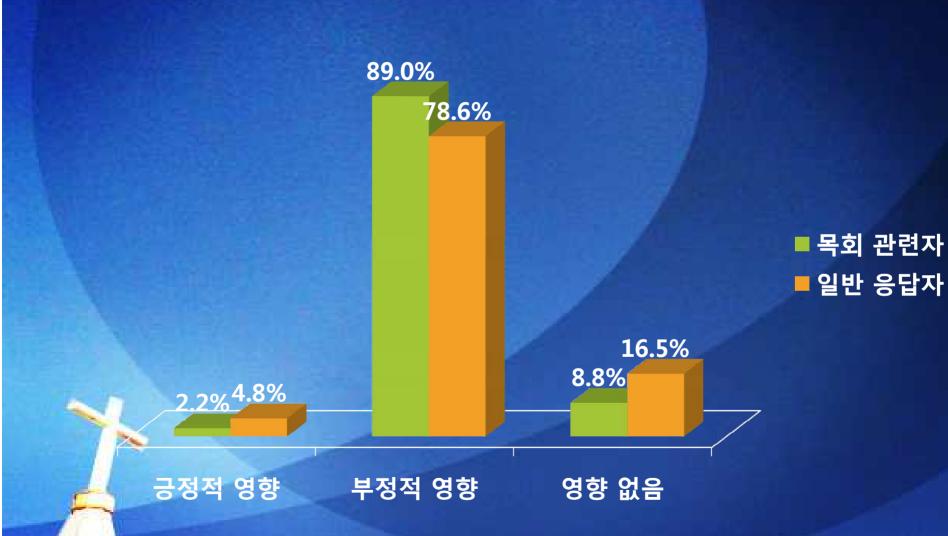
세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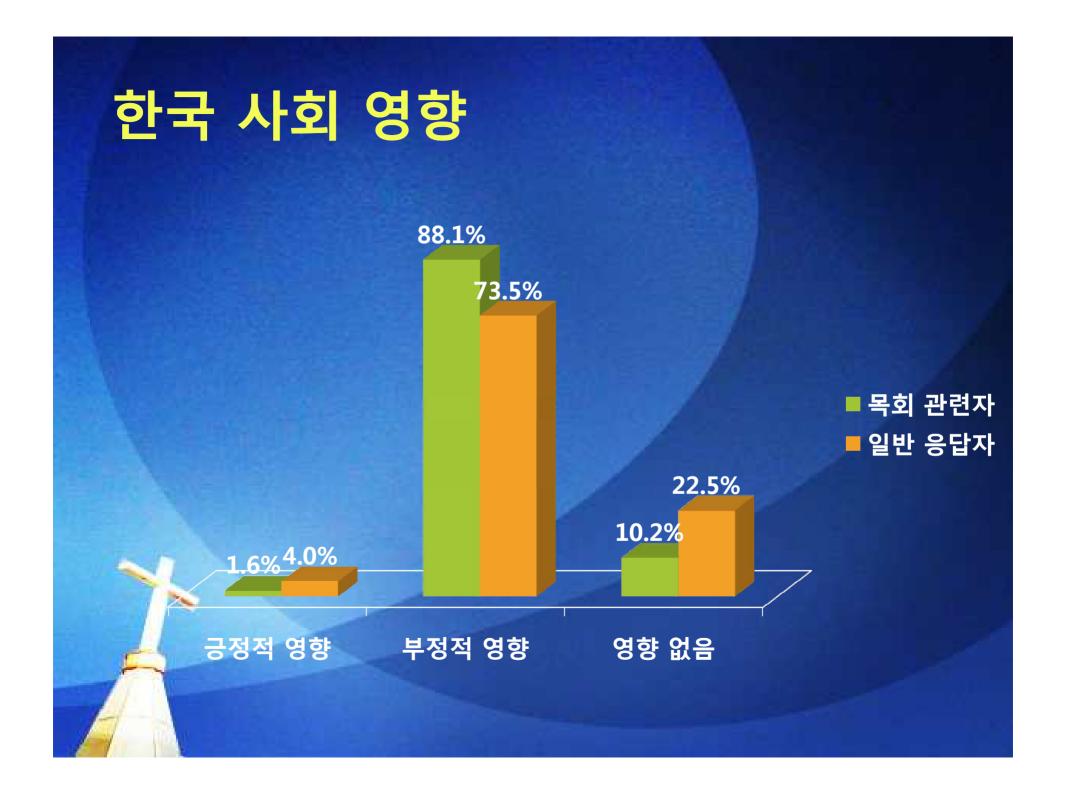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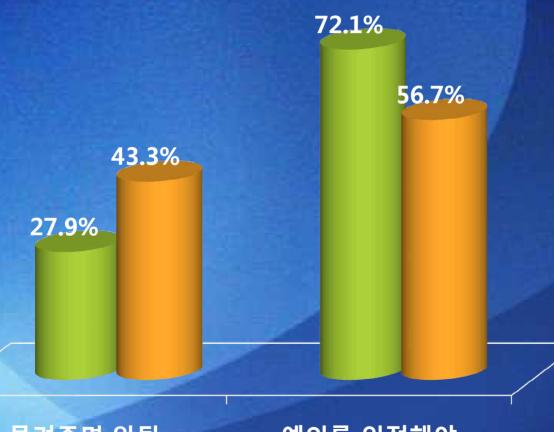


한국 교회 영향





농어촌 미자립 교회 세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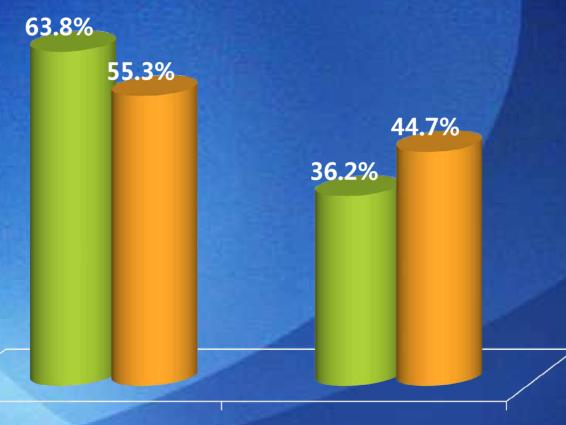
■목회 관련자

■일반 응답자

물려주면 안됨

예외를 인정해야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경우 세습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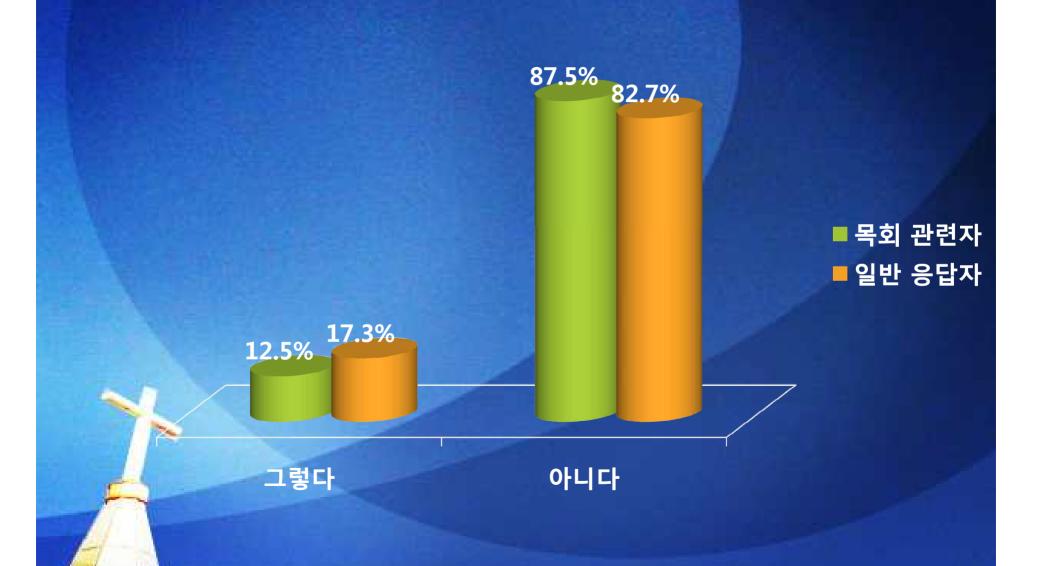
■목회 관련자

■일반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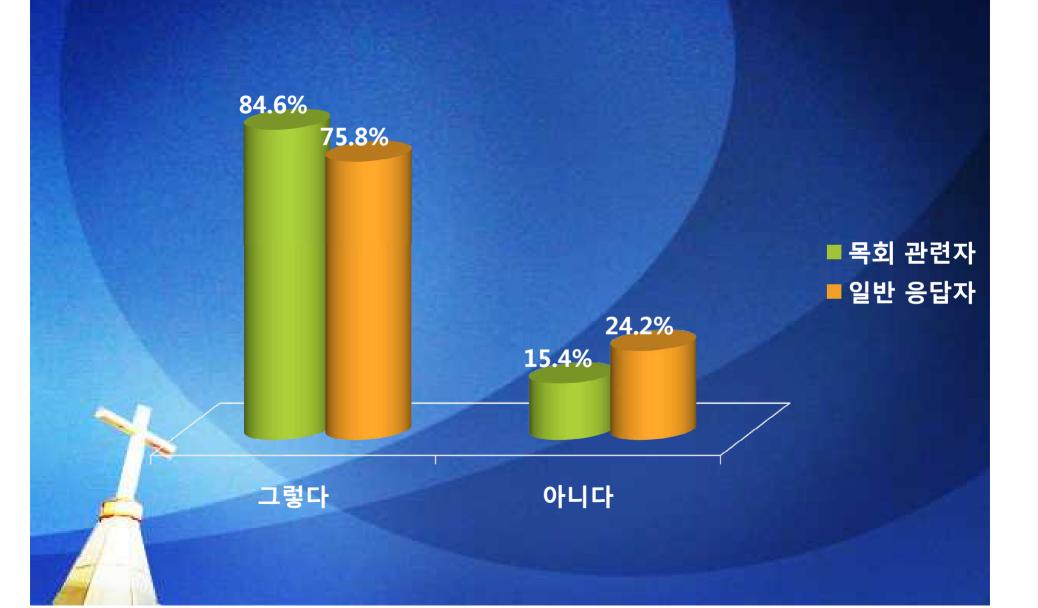
세습이며 잘못임

결과가 좋다면 괜찮음

교회만 부흥한다면 세습이라도 상관없는지



세습의 문제가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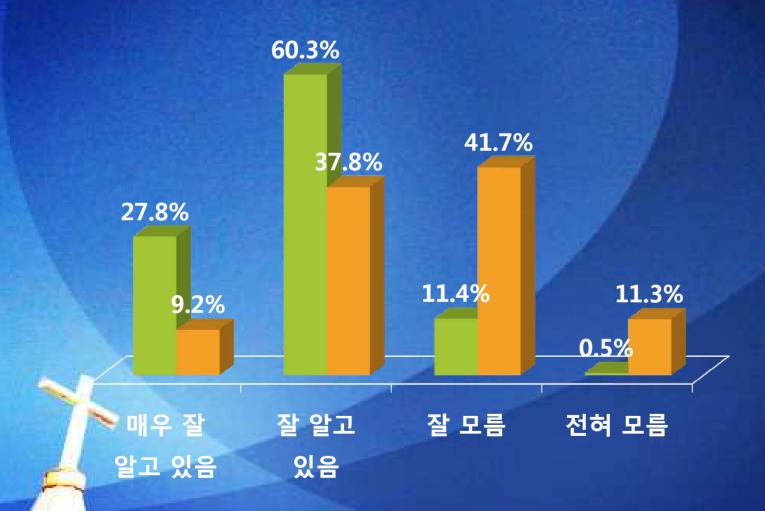
세습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 1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목회 관련자	교단연합기구 (50.3%)	공동의회, 제직회 역할 (20.3%)	당회의 역할 (12.9%)	교회연합기구 (7.3%)	
일반 응답자	교회연합기구 (30.2%)	교단연합기구 (24.2%)	공동의회, 제직회 역할 (16.1%)	사회적 차원의 견제 (13.6%)	

세습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 2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목회 관련자	목회자의 자기비움과 성찰 (49.5%)	강력한 교회법 제정 (28.0%)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14.2%)	평신도의 수준 향상 (5.6%)
일반 응답자	목회자의 자기비움과 성찰 (33.5%)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25.2%)	강력한 교회법 제정 (22.3%)	평신도의 수준 향상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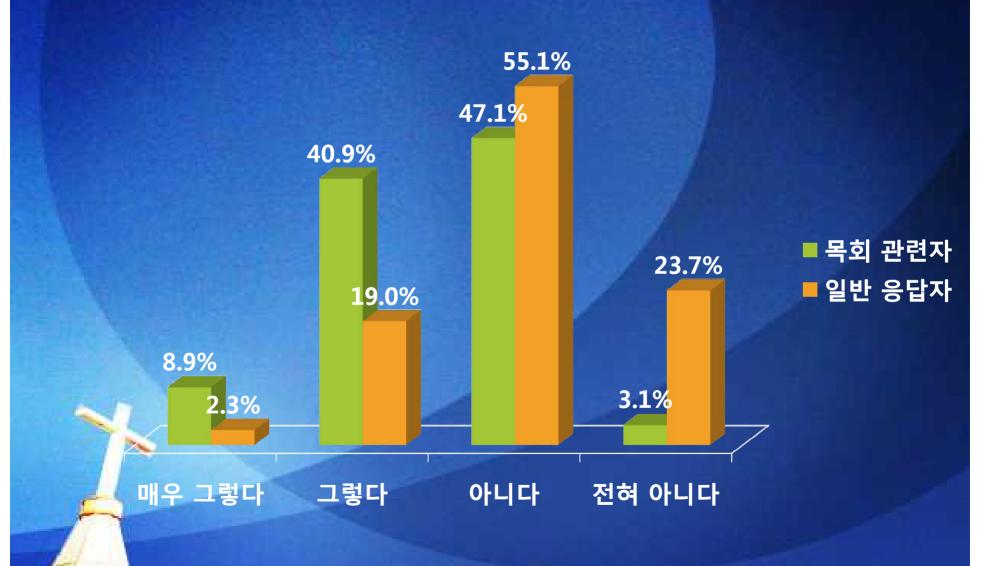
세습에 대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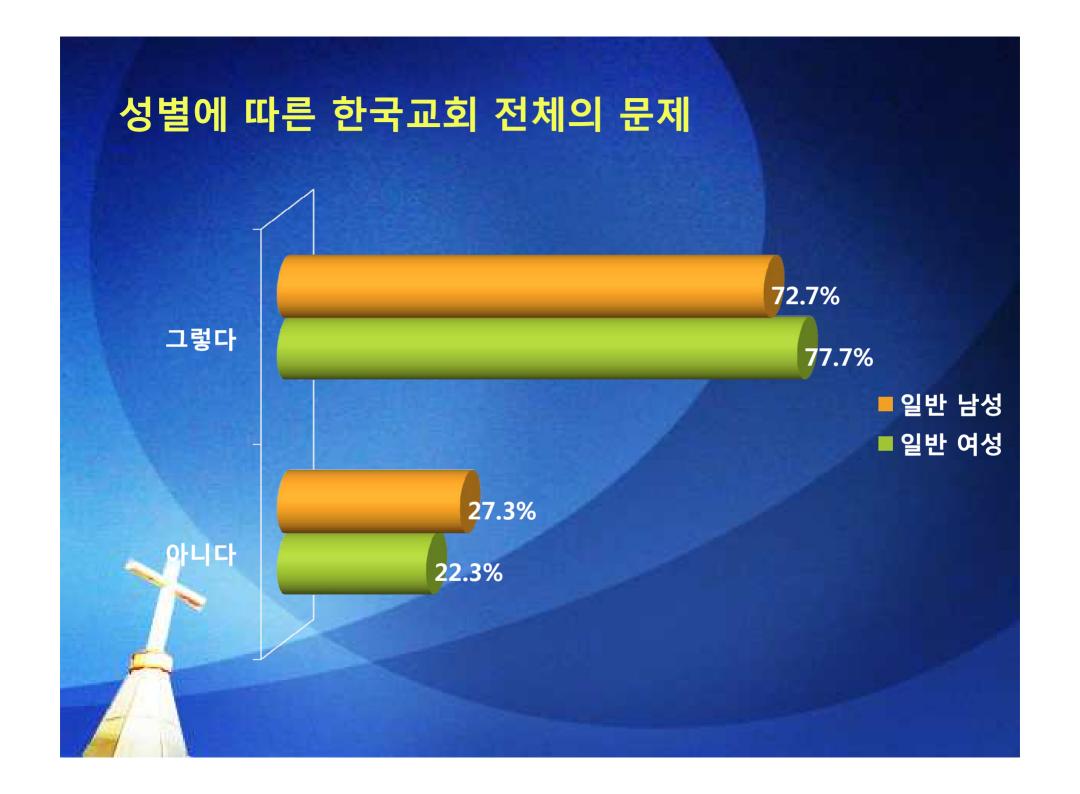
■목회 관련자

■ 일반 응답자

세습에 관한 적극적 정보 수집



일반 응답자 세습에 관한 변수 간의 관계 검증



연령에 따른 아들을 후임목사로 세우는 것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명백한 세습이며 잘못 (54.5%)	50대 (72.7%)	60대이상 (67.7%)	40대 (65.1%)	30대 (58.8%)	20대 (40.6%)	10대 (28.6%)
세습이 아니라 목회자청빙 (4.6%)	10대 (14.3%)	40대 (5.5%)	60대이상 (5.4%)	50대 (4.0%)	20대 (4.0%)	30대 (2.6%)
법대로 했으면 문제없음 (40.9%)	10대 (57.1%)	20대 (55.4%)	30대 (38.6%)	40대 (29.4%)	60대이상 (26.9%)	50대 (23.8%)

연령에 따른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찬성	10대	60대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4.0%)	(8.5%)	(6.1%)	(5.5%)	(4.3%)	(2.9%)	(2.7%)
반대	50대	60대이상	40대	30대	20대	10대
(61.7%)	(76.7%)	(70.4%)	(70.3%)	(67.4%)	(50.5%)	(31.0%)
관심없음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이상	50대
(34.3%)	(60.6%)	(46.8%)	(29.7%)	(25.4%)	(23.5%)	(17.8%)

연령에 따른 농어촌 미자립 교회 세습에 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물려주면 안됨 (43.2%)	50대 (53.7%)	30대 (49.6%)	40대 (46.5%)	60대이상 (43.6%)	20대 (35.8%)	10대 (28.2%)
예외를 인정해야 (56.8%)	10대 (71.8%)	20대 (64.2%)	60대이상 (56.4%)	40대 (53.5%)	30대 (50.4%)	50대 (46.3%)

연령에 따른 교회부흥의 경우 세습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그렇다	10대	60대이상	20대	40대	50대	30대
(17.1%)	(33.3%)	(20.4%)	(20.0%)	(16.2%)	(14.9%)	(8.9%)
아니다	30대	50대	40대	20대	60대이상	10대
(82.9%)	(91.1%)	(85.1%)	(83.8%)	(80.0%)	(79.6%)	(66.7%)

연령에 따른 세습이 한국교회 전체 문제인지의 관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그렇다	60대이상	40대	50대	30대	20대	10대
(75.9%)	(85.3%)	(85.1%)	(82.5%)	(81.9%)	(68.1%)	(44.9%)
아니다	10대	20대	30대	50대	40대	60대이상
(24.1%)	(55.1%)	(31.9%)	(18.1%)	(17.5%)	(14.9%)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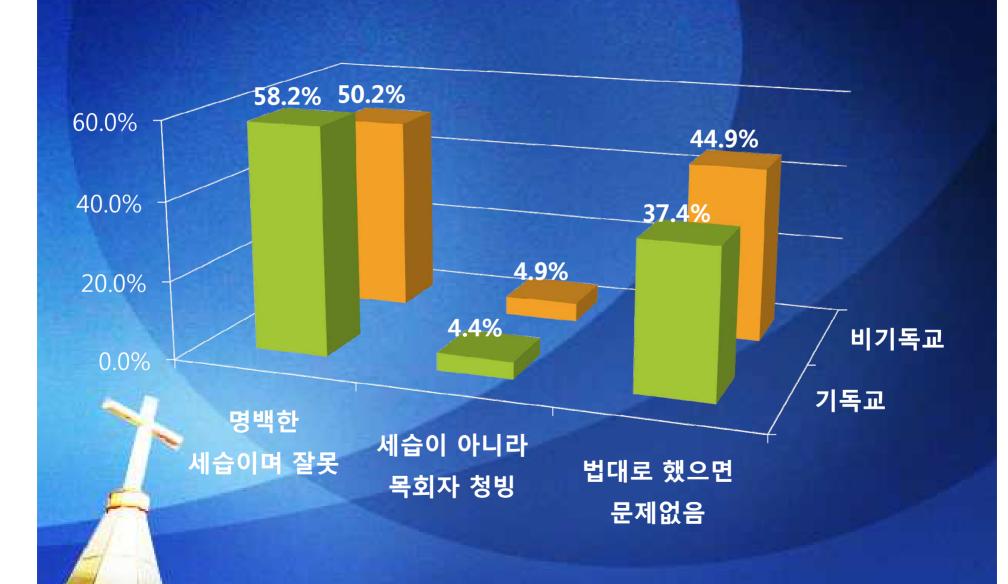
연령에 따른 세습예방에 대한 의견1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교회 연합기구 (30.1%)	20대 (36.3%)	30대 (29.2%)	10대 (28.3%)	40대 (27.3%)	60대이상 (26.5%)	50대 (24.1%)
교단 연합기구 (24.1%)	60대이상 (33.7%)	50대 (29.9%)	40대 (28.2%)	30대 (20.6%)	20대 (20.3%)	10대 (10.9%)
공동의회, 제직회역할 (16.2%)	10대 (21.7%)	30대 (18.5%)	40대 (18.2%)	50대 (17.0%)	20대 (13.8%)	60대이상 (12.0%)
사회적 차원의견제 (13.7%)	10대 (17.4%)	40대 (14.8%)	20대 (13.8%)	30대 (13.3%)	60대이상 (13.3%)	50대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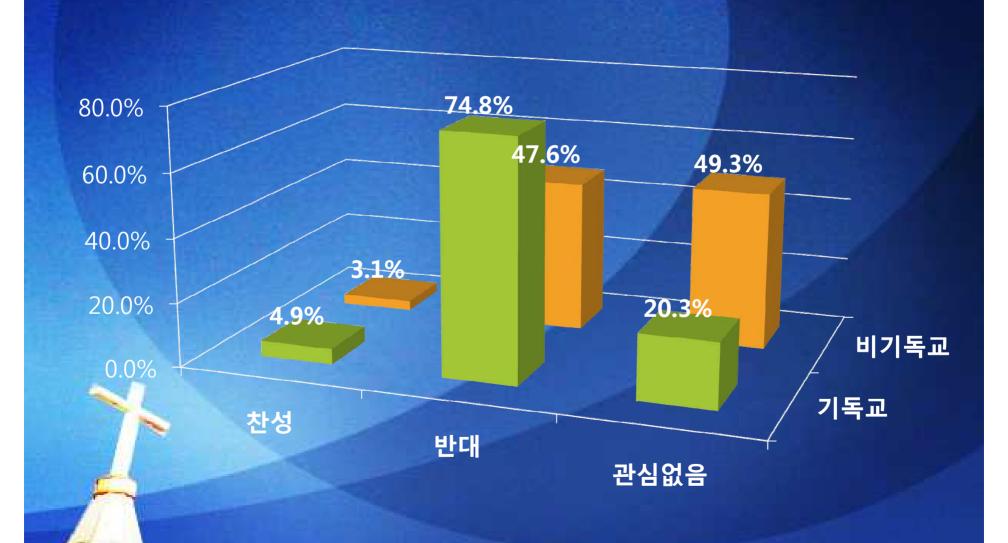
연령에 따른 세습 인지 정도의 관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매우 잘 알고 있다 (9.2%)	60대이상 (21.3%)	40대 (16.3%)	50대 (15.6%)	30대 (5.9%)	20대 (3.8%)	10대 (1.4%)
잘 알고 있다 (37.9%)	50대 (52.3%)	60대이상 (47.9%)	30대 (45.8%)	40대 (45.6%)	20대 (26.1%)	10대 (10.0%)
잘 모른다 (41.5%)	10대 (62.9%)	20대 (52.0%)	30대 (41.3%)	40대 (30.2%)	60대이상 (28.7%)	50대 (28.4%)
전혀 모른다 (11.3%)	10대 (25.7%)	20대 (18.1%)	40대 (7.9%)	30대 (7.0%)	50대 (3.7%)	60대이상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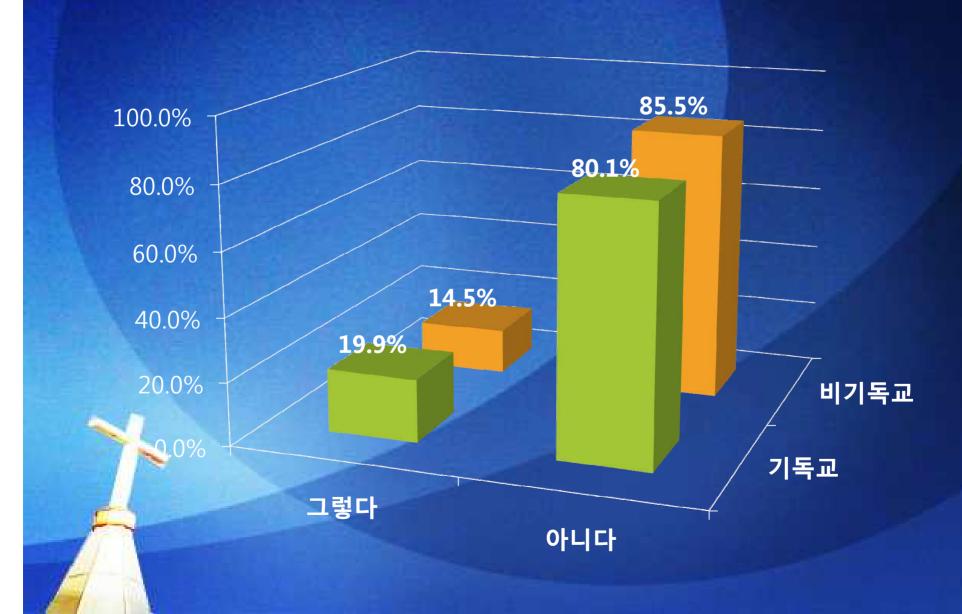
종교에 따른 아들을 후임목사로 세우는 것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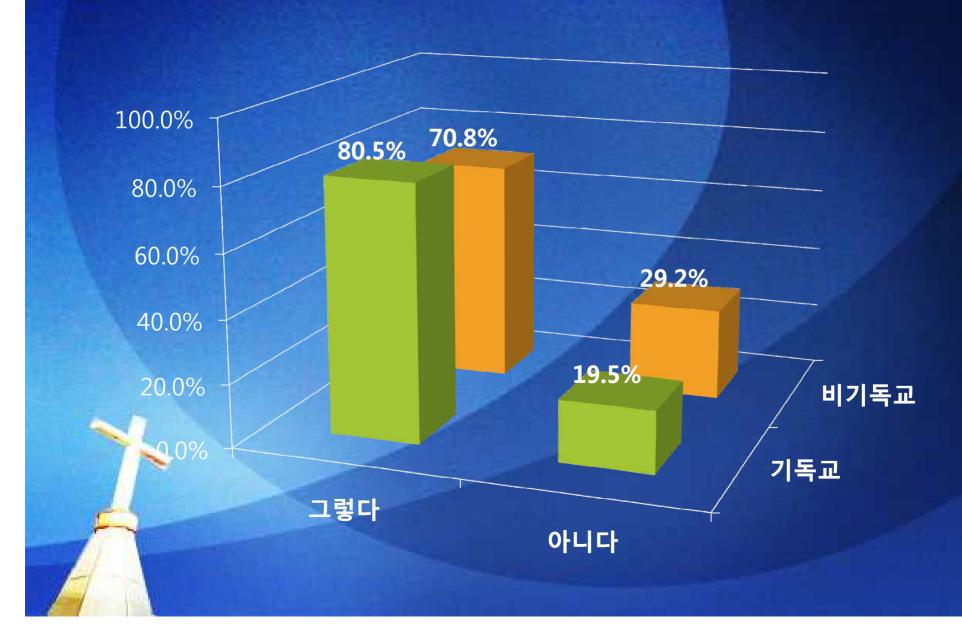
종교에 따른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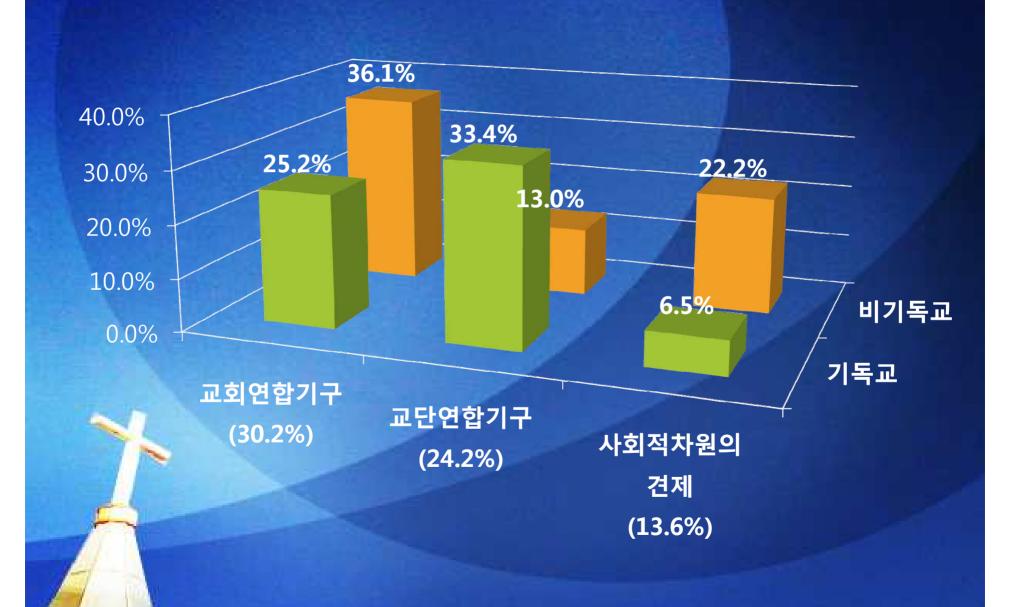
종교에 따른 교회부흥의 경우 세습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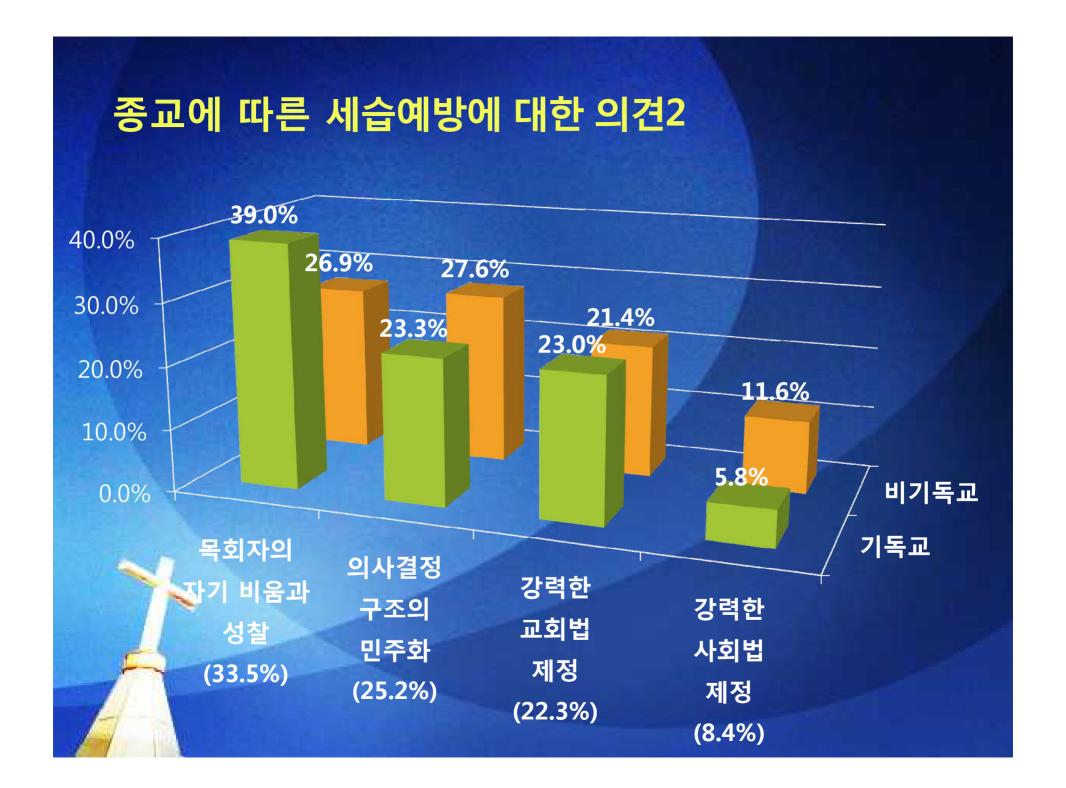


종교에 따른 세습이 한국교회 전체 문제인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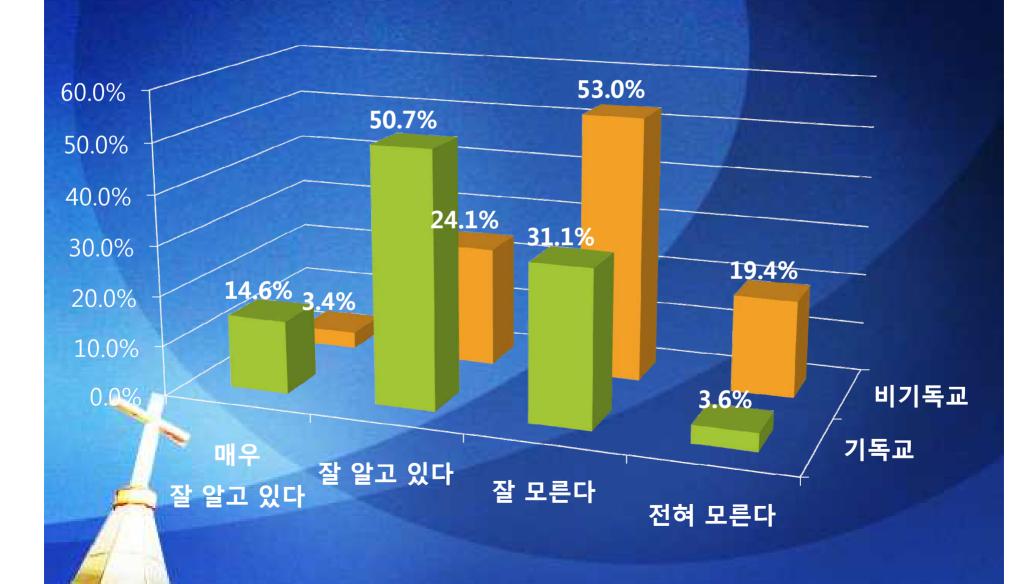


종교에 따른 세습예방에 대한 의견1





종교에 따른 세습인지 정도의 관계



직분에 따른 아들을 후임목사로 세우는 것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명백한 세습이며 잘못 (57.4%)	안수집사 (70.2%)	권사 (67.1%)	장로 (66.7%)	서리집사 (66.2%)	평신도 (49.6%)
세습이 아니라 목회자청빙 (5.1%)	장로 (9.5%)	권사 (8.2%)	서리집사 (5.6%)	평신도 (4.7%)	안수집사 (0.0%)
법대로 했으면 문제없음 (37.5%)	평신도 (45.8%)	안수집사 (29.8%)	서리집사 (28.2%)	권사 (24.7%)	장로 (23.8%)

직분에 따른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찬성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장로	평신도
(4.9%)	(6.9%)	(6.4%)	(5.9%)	(4.8%)	(4.0%)
반대	권사	장로	서리집사	안수집사	평신도
(72.0%)	(83.9%)	(81.0%)	(79.4%)	(78.7%)	(65.1%)
관심없음	평신도	안수집사	서리집사	장로	권사
(23.0%)	(30.9%)	(14.9%)	(14.7%)	(14.3%)	(9.2%)

직분에 따른 세습이 한국교회 전체 문제인지의 관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렇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평신도
(79.6%)	(90.0%)	(87.4%)	(86.0%)	(84.9%)	(74.6%)
아니다	평신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20.4%)	(25.4%)	(15.1%)	(14.0%)	(12.6%)	(10.0%)

직분에 따른 세습예방에 대한 의견1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교단 연합기구 (31.1%)	장로 (42.9%)	권사 (39.0%)	서리집사 (34.4%)	안수집사 (31.8%)	평신도 (26.8%)
교회 연합기구 (27.0%)	평신도 (31.1%)	권사 (27.3%)	장로 (23.8%)	서리집사 (21.5%)	안수집사 (20.5%)
당회의 역할 (9.8%)	장로 (28.6%)	서리집사 (14.4%)	권사 (10.4%)	평신도 (6.8%)	안수집사 (4.5%)
사회적 차원의 견제 (8.0%)	평신도 (11.1%)	안수집사 (9.1%)	권사 (7.8%)	서리집사 (3.3%)	장로 (0.0%)

직분에 따른 세습 인지 정도의 관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매우 잘 알고 있다 (13.0%)	안수집사 (23.3%)	장로 (20.0%)	권사 (19.0%)	서리집사 (15.8%)	평신도 (9.3%)
잘 알고 있다 (47.9%)	안수집사 (60.5%)	장로 (60.0%)	서리집사 (55.6%)	권사 (54.8%)	평신도 (41.3%)
잘 모른다 (34.0%)	평신도 (41.3%)	서리집사 (27.8%)	권사 (25.0%)	장로 (15.0%)	안수집사 (14.0%)
전혀 모른다 (5.0%)	평신도 (8.1%)	장로 (5.0%)	안수집사 (2.3%)	권사 (1.2%)	서리집사 (0.9%)

학력에 따른 아들을 후임목사로 세우는 것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명백한 세습이며 잘못 (54.5%)	대학원이상 (60.8%)	대졸 (60.4%)	중졸이하 (56.9%)	고졸 (49.7%)	전문대졸 (43.3%)
세습이 아니라 목회자청빙 (4.7%)	중졸이하 (17.6%)	전문대졸 (7.7%)	고졸 (5.0%)	대졸 (2.9%)	대학원이상 (2.2%)
법대로 했으면 문제없음 (40.9%)	전문대졸 (49.0%)	고졸 (45.3%)	대학원이상 (37.0%)	대졸 (36.7%)	중졸이하 (25.5%)

학력에 따른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찬성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전문대졸
(4.1%)	(13.5%)	(4.7%)	(3.4%)	(3.3%)	(2.5%)
반대	대학원이상	대졸	전문대졸	고졸	중졸이하
(61.8%)	(78.7%)	(66.3%)	(52.7%)	(55.9%)	(46.2%)
관심없음	전문대졸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34.2%)	(44.8%)	(40.4%)	(39.4%)	(30.3%)	(18.0%)

학력에 따른 교회부흥의 경우 세습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렇다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원이상	대졸
(17.4%)	(25.5%)	(21.5%)	(17.3%)	(15.1%)	(13.6%)
아니다	대졸	대학원이상	전문대졸	고졸	중졸이하
(82.6%)	(86.4%)	(84.9%)	(82.7%)	(78.5%)	(74.5%)

학력에 따른 세습예방에 대한 의견2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목회자의 자기비움과 성찰 (33.4%)	대졸 (35.9%)	대학원이상 (34.2%)	고졸 (33.6%)	전문대졸 (28.6%)	중졸이하 (19.0%)
의사 결정 구조의 민주화 (25.4%)	대학원이상 (30.4%)	대졸 (27.7%)	전문대졸 (26.7%)	중졸이하 (21.4%)	고졸 (20.4%)
강력한 교회법 제정 (22.2%)	중졸이하 (42.9%)	고졸 (22.0%)	대졸 (21.8%)	전문대졸 (21.1%)	대학원이상 (19.9%)

학력에 따른 세습 인지 정도의 관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매우 잘 알고 있다 (9.2%)	대학원이상 (19.4%)	중졸이하 (10.0%)	대졸 (9.7%)	고졸 (7.2%)	전문대졸 (3.5%)
잘 알고 있다 (37.8%)	대학원이상 (53.9%)	대졸 (43.1%)	전문대졸 (30.7%)	고졸 (30.0%)	중졸이하 (30.0%)
잘 모른다 (41.8%)	전문대졸 (53.3%)	중졸이하 (50.0%)	고졸 (46.7%)	대졸 (38.5%)	대학원이상 (22.8%)
전혀 모른다 (11.2%)	고졸 (16.1%)	전문대졸 (12.6%)	중졸이하 (10.0%)	대졸 (8.8%)	대학원이상 (3.9%)

거주지역에 따른 아들을 후임목사로 세우는 것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명백한 세습이며 잘못 (54.3%)	서울 (57.1%)	수도권 (57.1%)	중소도시 (56.6%)	도청소재 (47.9%)	광역시 (46.8%)	읍면도서 (45.8%)
세습이 아니라 목회자청빙 (4.6%)	중소도시 (7.5%)	읍면도서 (6.8%)	광역시 (6.4%)	수도권 (4.4%)	서울 (3.6%)	도청소재 (2.5%)
법대로 했으면 문제없음 (41.0%)	도청소재 (49.6%)	읍면도서 (47.5%)	광역시 (46.8%)	서울 (39.3%)	수도권 (38.5%)	중소도시 (35.8%)

거주지역에 따른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찬성	광역시	읍면도서	중소도시	수도권	서울	도청소재
(4.0%)	(9.0%)	(5.7%)	(5.1%)	(4.3%)	(2.6%)	(2.4%)
반대	수도권	서울	중소도시	광역시	읍면도서	도청소재
(61.6%)	(71.0%)	(64.7%)	(58.3%)	(55.1%)	(52.8%)	(49.6%)
관심없음	도청소재	읍면도서	중소도시	광역시	서울	수도권
(34.3%)	(48.0%)	(41.5%)	(36.6%)	(35.9%)	(32.7%)	(24.6%)

거주지역에 따른 교회부흥의 경우 세습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그렇다	읍면도서	광역시	중소도시	서울	도청소재	수도권
(17.3%)	(26.9%)	(21.0%)	(17.2%)	(16.1%)	(15.4%)	(14.1%)
아니다	수도권	도청소재	서울	중소도시	광역시	읍면도서
(82.7%)	(85.9%)	(84.6%)	(83.9%)	(82.8%)	(79.0%)	(73.1%)

평균소득에 따른 아들을 후임목사로 세우는 것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명백한 세습이며 잘못 (53.9%)	400~500만원 (76.5%)	500만원이상 (74.7%)	300~400만원 (62.0%)	200~300만원 (54.7%)	200만원이하 (48.4%)
세습이 아니라 목회자청빙 (4.4%)	200만원이하 (4.9%)	500만원이상 (4.8%)	400~500만원 (4.4%)	200~300만원 (3.4%)	300~400만원 (3.1%)
법대로 했으면 문제없음 (41.7%)	200만원이하 (46.7%)	200~300만원 (41.9%)	300~400만원 (34.9%)	500만원이상 (20.5%)	400~500만원 (19.1%)

평균소득에 따른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찬성	300~400만원	200만원이하	200~300만원	500만원이상	400~500만원
(3.9%)	(6.2%)	(3.9%)	(3.6%)	(3.6%)	(1.4%)
반대	500만원이상	400~500만원	300~400만원	200~300만원	200만원이하
(61.8%)	(76.2%)	(75.7%)	(68.5%)	(64.6%)	(57.0%)
관심없음	200만원이하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이상
(34.4%)	(39.1%)	(31.8%)	(25.4%)	(22.9%)	(20.2%)

평균소득에 따른 교회부흥의 경우 세습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렇다	200만원이하	200~300만원	300~400만원	500만원이상	400~500만원
(17.0%)	(19.0%)	(16.3%)	(15.0%)	(9.9%)	(9.0%)
아니다	400~500만원	500만원이상	300~400만원	200~300만원	200만원이하
(83.0%)	(91.0%)	(90.1%)	(85.0%)	(83.7%)	(81.0%)

평균소득에 따른 세습이 한국교회 전체 문제인지의 관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렇다	400~500만원	500만원이상	300~400만원	200~300만원	200만원이하
(75.5%)	(83.6%)	(82.7%)	(81.3%)	(79.0%)	(72.0%)
아니다	200만원이하	200~300만원	300~400만원	500만원이상	400~500만원
(24.5%)	(28.0%)	(21.0%)	(18.8%)	(17.3%)	(16.4%)

평균소득에 따른 세습 인지 정도의 관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매우 잘 알고 있다 (8.7%)	500만원이상 (25.9%)	400~500만원 (11.9%)	200~300만원 (10.2%)	300~400만원 (8.5%)	200만원이하 (6.3%)
잘 알고 있다 (38.1%)	400~500만원 (59.7%)	500만원이상 (54.3%)	300~400만원 (48.8%)	200~300만원 (42.0%)	200만원이하 (31.7%)
잘 모른다 (42.0%)	200만원이하 (47.8%)	300~400만원 (39.5%)	200~300만원 (37.6%)	400~500만원 (26.9%)	500만원이상 (16.0%)
전혀 모른다 (11.1%)	200만원이하 (14.2%)	200~300만원 (10.2%)	500만원이상 (3.7%)	300~400만원 (3.1%)	400~500만원 (1.5%)

담임목사 세습의견에 따른 한국교회 영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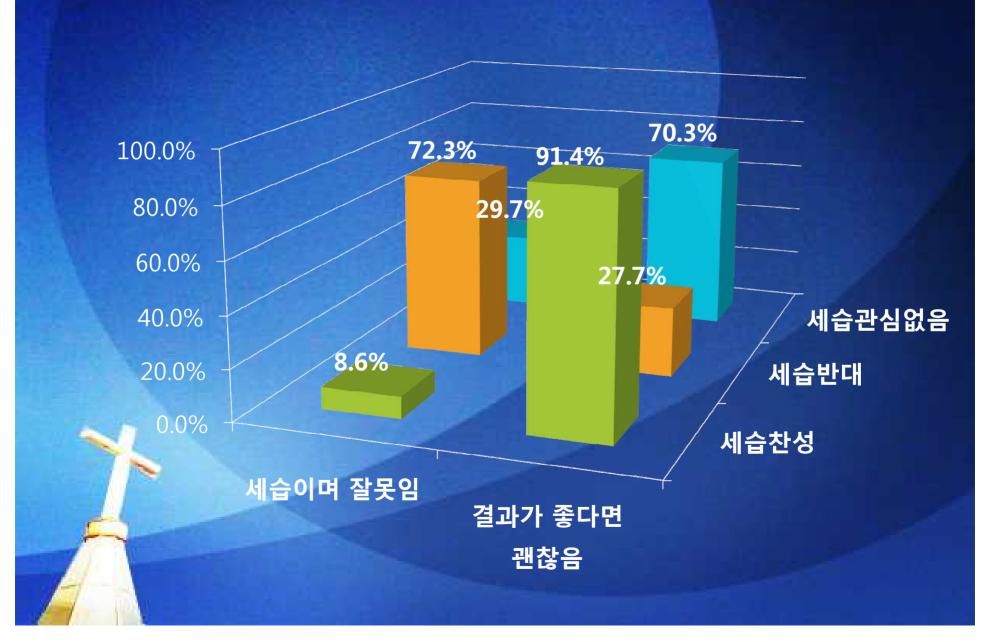
담임목사 세습의견에 따른 한국사회 영향에 대한 의견



담임목사 세습의견에 따른 농어촌 미자립 교회 세습에 관한 의견



담임목사 세습의견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경우의 세습의견



목회 관련자 세습에 관한 변수 간의 관계 검증

직분에 따른 아들을 후임목사로 세우는 것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명백한 세습이며 잘못 (58.6%)	신학교수 (68.9%)	부목사 (65.1%)	신학생 (58.4%)	담임목사 (49.5%)
세습이 아니라 목회자청빙 (4.0%)	담임목사 (11.2%)	신학생 (2.8%)	부목사 (2.3%)	신학교수 (0.0%)
법대로 했으면 문제없음 (37.4%)	담임목사 (39.3%)	신학생 (38.8%)	부목사 (32.6%)	신학교수 (31.1%)

직분에 따른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찬성	담임목사	신학생	신학교수	부목사
(5.5%)	(15.2%)	(3.4%)	(2.8%)	(2.3%)
반대	신학교수	신학생	부목사	담임목사
(84.7%)	(87.5%)	(87.2%)	(83.7%)	(75.2%)
관심없음	부목사	신학교수	신학생	담임목사
(9.9%)	(14.0%)	(9.7%)	(9.5%)	(9.5%)

직분에 따른 세습이 교회부흥의 경우 세습의견의 관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렇다	담임목사	부목사	신학생	신학교수
(12.5%)	(26.0%)	(11.6%)	(9.9%)	(5.4%)
아니다	신학교수	신학생	부목사	담임목사
(87.5%)	(94.6%)	(90.1%)	(88.4%)	(74.0%)

직분에 따른 세습이 한국교회 전체 문제인지의 관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렇다	부목사	신학교수	신학생	담임목사
(84.6%)	(95.3%)	(87.7%)	(87.4%)	(69.2%)
아니다	담임목사	신학생	신학교수	부목사
(15.4%)	(30.8%)	(12.6%)	(12.3%)	(4.7%)

직분에 따른 세습 인지 정도의 관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매우 잘 알고 있다 (27.8%)	신학교수 (44.6%)	담임목사 (35.8%)	부목사 (34.1%)	신학생 (20.5%)
잘 알고 있다 (60.3%)	신학생 (62.4%)	부목사 (61.4%)	담임목사 (58.5%)	신학교수 (52.7%)
잘 모른다 (11.4%)	신학생 (16.5%)	담임목사 (4.7%)	부목사 (4.5%)	신학교수 (2.7%)
전혀 모른다 (0.5%)	담임목사 (0.9%)	신학생 (0.6%)	부목사 (0.0%)	신학교수 (0.0%)

거주지역에 따른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찬성	읍면도서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	중소도시	서울
(5.5%)	(8.2%)	(6.3%)	(5.9%)	(5.6%)	(5.4%)	(3.8%)
반대	서울	도청소재	광역시	수도권	읍면도서	중소도시
(84.6%)	(90.3%)	(88.9%)	(87.3%)	(83.3%)	(79.5%)	(67.9%)
관심없음	중소도시	읍면도서	수도권	광역시	서울	도청소재
(9.9%)	(26.8%)	(12.3%)	(10.4%)	(6.8%)	(5.9%)	(5.6%)

거주지역에 따른 교회부흥의 경우 세습에 대한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그렇다	읍면도서	중소도시	도청소재	광역시	수도권	서울
(12.5%)	(26.4%)	(23.1%)	(15.8%)	(11.5%)	(9.4%)	(6.0%)
아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	중소도시	읍면도서
(87.5%)	(94.0%)	(90.6%)	(88.5%)	(84.2%)	(76.9%)	(73.6%)

거주지역에 따른 세습이 한국교회 전체 문제인지의 관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그렇다	서울	도청소재	수도권	중소도시	광역시	읍면도서
(84.7%)	(91.8%)	(89.5%)	(85.3%)	(84.6%)	(81.3%)	(70.8%)
아니다	읍면도서	광역시	중소도시	수도권	도청소재	서울
(15.3%)	(29.2%)	(18.7%)	(15.4%)	(14.7%)	(10.5%)	(8.2%)

담임목사 세습의견에 따른 한국교회 영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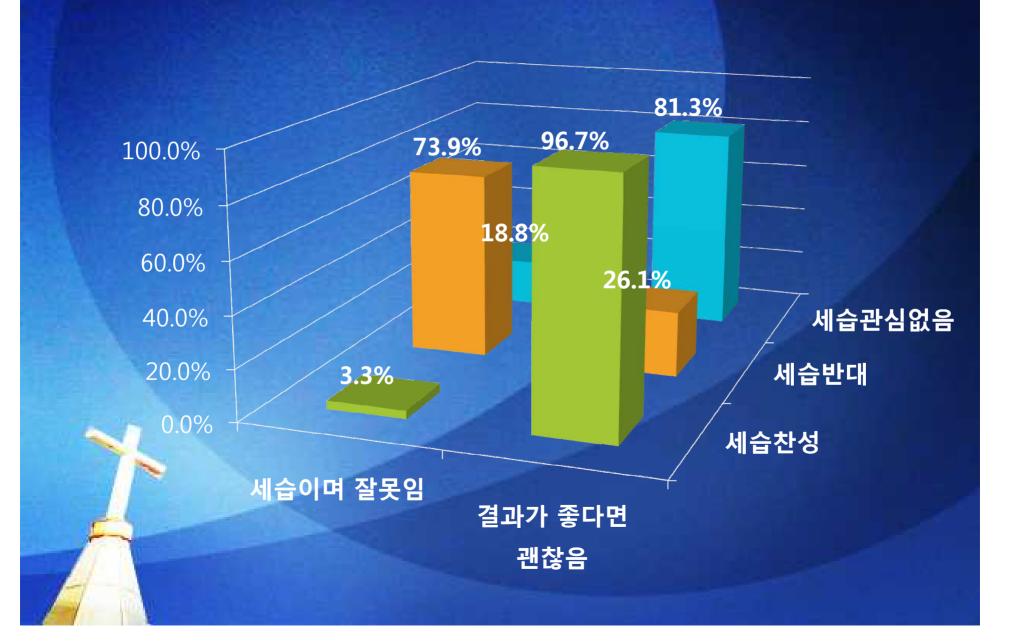
담임목사 세습의견에 따른 한국사회 영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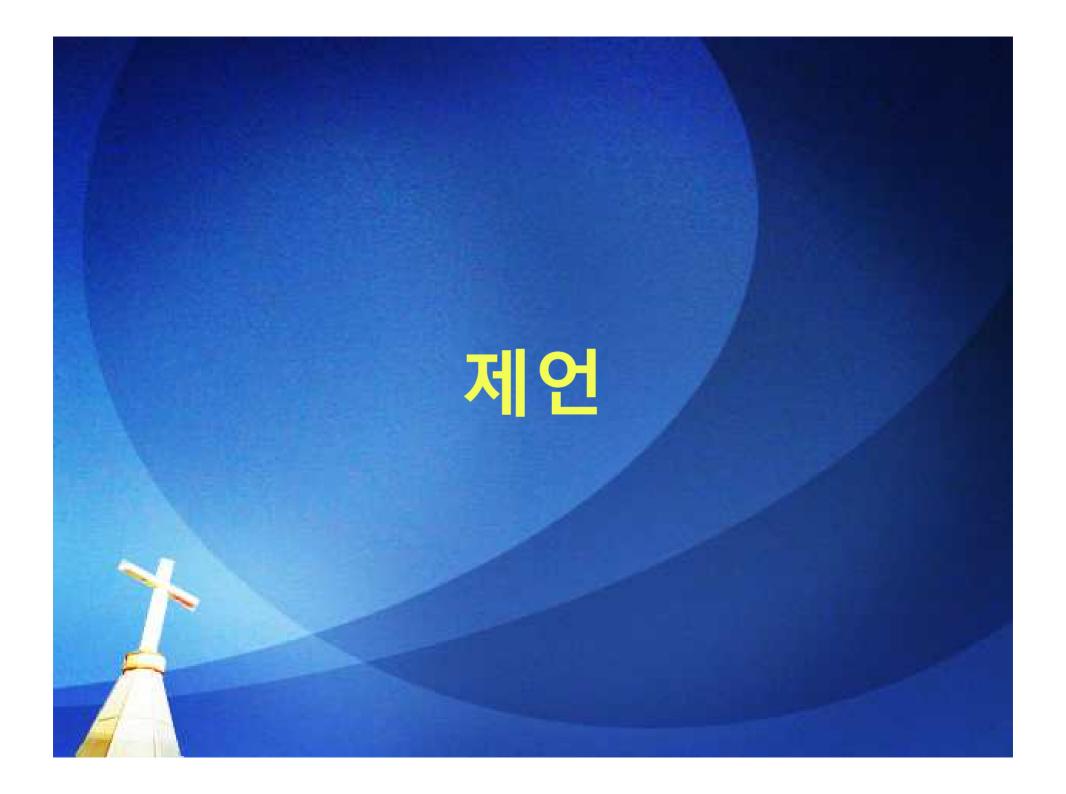


담임목사 세습의견에 따른 농어촌 미자립 교회 세습에 관한 의견



담임목사 세습의견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경우의 세습의견





제언

○ 일반인들은 '교회 내 세습'에 민감하지 않음.

절차대로 하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찰 필요.

○ 50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



교회 내부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함.

세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

교단협의체, 교회 협의체의 노력이 필요.